

문재인·박지원 ‘2강’…잠재 후보들 행보 변수

새정치 전대 준비위 이번주 출범…출마자 윤곽

정세균·김동철·조경태·김부겸·박영선 등도 거론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구도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게임의 규칙을 정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하면서 물의 전전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당권 주자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당 안팎에서 ‘최대·최강의 계파’로 인식되는 진노(진노무현) 진영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진노계 일각에서 문 의원의 당 대표직 수행이 차기 대권행보에 오히려 흠집을 낼 것이라는 염려를 보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출마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권과 대권이 분리될 경우, 문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는 유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문 의원의 당권 도전은 비노 및 중도 진영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남을 상징하는 박지원 의원의 역시 당 대표 도전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특히, 문 의원이 당권보다는 대권 도전으로 방향을 틀 경우, 박 의원은 호남과 중도 진영은 물론, 진노 일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박지원 의원의 ‘역할론’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점

차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법 진노 진영의 정세균 의원의 당권 도전이 확실히 되지만 위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영식, 전병헌, 최재성 의원 역시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당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노(비노무현)와 중도 진영에서는 김동철, 조경태(이상 당대표) 의원이 전대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86 그룹에서는 이인영, 우상호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세력은 물론 당내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는 전언이다.

여성으로는 추미애 의원의 당권 도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으로 조기 퇴진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대선 주자급인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2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편이지만, 만만찮은 잠재 후보들의 행보가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인 김부겸 전 의원과 텃밭인 호남에서 현장 투어를 펼친 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중도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민중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임)이 10일 정기 모임을 갖고 전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계파 간 ‘물 전쟁’이 접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86그룹과 정세균계, 비노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대권 주자는 당 대표에 출마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져 유력 주자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권 잠룡들 ‘브랜드차별화’

김무성 ‘보수 혁신’ 김문수 ‘정치 혁신’ 목적

홍준표·남경필·원희룡 등도 자기 색깔내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잠룡들이 브랜드 차별화로 대망을 키워가고 있다.

우선 김무성 대표는 정당 및 공천 개혁,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한 ‘보수 개혁’의 출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자신이 계파 갈등 속에 두 번이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악몽이 있는 만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통한 공천 개혁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폐단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소신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정치 혁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보수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뒤, 가 한 달여 만에 체포동의안 개선,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 세비 동결, 선거관리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 설치 등 잇따라 정치권에서 민감한 주제들을 건드리며 정치권 구대 깨기에 앞장서고 있다.

당 밖에서는 지방 도배들이 자기 색깔을 뚜렷이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내년부터 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

언하면서 지방은 물론 중앙 정치권까지 발칵 뒤집어 놔다. 홍 지사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진보 진영이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온 각종 무상 정책에 칼질을 가함으로써 ‘보수의 아이콘’으로 뜨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시기에 여야 연정을 통한 ‘권력 분산’이라는 과감한 정치실험에 들어갔다. 정치권이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끄러운 동안 남 지사는 ‘조용한 실천’을 하는 셈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앙 정부 정책과 차별화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유형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카지노 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김무성 대표가 ‘제주 차이나타운’ 구상을 밝히자, 부자육이 더 많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 지사는 대선 투자를 늘리면서도 현직인 채용을 늘리는 고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정몽준 전 대표는 정치권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한반도 외교를 포함한 국가 비전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 국회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연합이 ‘위원회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안이 불거질 때 마다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 지난 3주 동안 무려 13명의 단장 및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각종 현안 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지만, 조직이 산만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관련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를 꾸리면서 강기정 의원을 단장으로 삼았다.

나흘 후인 27일에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국부유출

새정치는 ‘위원회 정당’?

현안 불거질때마다 특위·TF만들어 대응

3주일 새 무려 13명의 단장·위원장 탄생

자원외교 진상조사단’ 단장을 노영민 의원에게, ‘방산비리 조사단’ 단장을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에게 맡겼다.

이달 5일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백재현 의원을 희망사회추진단장과 노웅래 의원을 안전사회추진단장을 임명했고, 각 추진단 산하에 3명씩 모두 6명의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밖에도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의 경우 조정식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겸했으나 당무에 바빠 적극 활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종걸 의원으로 위원장을 교체했으며, ‘부동산 대책 TF’도 구성해 정성호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이처럼 새 위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기존의 4대강 진상조사위나 언론공정성 특위, 원전 대책 특위,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판피야

방지 특위 등을 모두 합치면 당내 위원회만 10개를 훌쩍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당 내외에서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처럼 위원회를 설치해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개입유일’ 상태인 위원회도 많다는 점에서 생색내기나 감투 씌워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각종 현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위원회가 설립됐지만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정치개혁’ 난상토론 벌인다

12일 4당 혁신위원장 모여 정당공천·선거구 등 공방

여야 4당의 혁신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개혁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운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특별위원회장이 참여,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등 3개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국회개혁 분야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선진화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당개혁과 관련해선 정당공천제가 화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오래 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가운데 연말개부터 공천제도 개선이 보수혁신위의 중점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세대별, 계층별 비례대표 후보를 상향식 선출로 정하는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선거개혁 주제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 인구비율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두고 열린 토론이 예상된다.

일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향에선 동일한 안을 내놨다.

한편, 새누리당은 11일 첫 혁신 의원 총회를 소집해 보수혁신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같은날 새정치연합 혁신위도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어 지역주의 극복,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에 대해 당·내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NAVER *전국최저가* 단비플라워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 법 백 헌 학개론 임진택 공 법 이강열
중개법 홍득기 공시법 안규태 세 법 임기원

개강 11월10일 주부반 11월~12월 7개과정전과목강의함다.
성인반 11월~12월 7개과정전과목강의함다.
정원만 **이대넷 동영상수업은 무료**

합격을 1위 **신해방**이후한1등학원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 민율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합격을 위한 핵심강의의 모의고사
· 기출문제 11월~12월 · 기출문제 11월~12월
· 기출문제 11월~12월 · 기출문제 11월~12월
· 기출문제 11월~12월 · 기출문제 11월~12월
· 기출문제 11월~12월 · 기출문제 11월~12월
· 기출문제 11월~12월 · 기출문제 11월~12월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2명 배출

광주새롬학원에서 제 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상담사 특강(주·야)

학원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창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 본원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본원 2층
☎361-8111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4. **11. 10(월)** ~ 11. 21(금)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1.25(화) 오후 4:00~
		목회학과(D.Min.)	
		신학과(Th.M.)	
		신학연구학과(M.A.T.)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12.13(토)오후 3:00~
		유아교육학과(M.Ed.)	
		신학학과(M.Div.)	12.12(금)오전10: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12.12(금)오전10:00~
		상담심리치료학과(M.A.)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12.13(토)오후 3:00~
		평생교육학과(M.Ed.)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학 부

정시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3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포크기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 24(수)
③ 전 형 일 : 2015. 1. 6(화)

임용이 있는 대학·임용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맥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